

이덕일의 '역사의 창'



조선의 사헌부와 대한민국 검찰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과 비슷한 조선의 사법기관은 사헌부(司憲府)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조선은 사헌부는 물론 의금부, 형조, 한성부 등 여러 기관에 수사권을 주었다.

성종 1년(1470년) 7월 부상(富商) 김득부(金得富)가 대신 김정광(金正光)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세조 때의 책계공신 김국공의 동생 김정광에 대한 의금부의 수사는 미진했다.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은 지금의 차관급인 종2품에 지나지 않지만 그 위세는 정1품에 뒤지지 않았다. 백관에 대한 탄핵권과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칼럼



임성훈
조선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칫솔질 원칙은 '3-3-3법'이다.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하루 세 번 칫솔질을 하라는 의미다.

정량음료나 주스, 오렌지 등의 산성 음식을 섭취한 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음식들은 섭취 과정에서 치아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즉시 칫솔질을 하면 치아가 더 쉽게 마모될 수 있다.

기고



우홍섭
전 진도군 부군수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북극의 빙하도 빠르게 녹아 내리고 있다. 해양 생물 다양성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기후변화이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거나 줄여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야 한다.

술 '관직전고(官職典故)'는 '지평(持平:정5품)은 뜰에 내려가서 장령(掌令:정4품)을 맞았고, 장령은 집의(集義:종3품)를 또 그와 같이 맞았으며, 집의 이하는 모두 내려가서 대사헌을 맞는 것이 상례(常例)였다'고 전하고 있다.

사헌부가 나라사람들의 신망을 산 이유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추상감았기 때문이다. 수장인 대사헌일 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각 탄핵하고 나섰다.

앞의 '연려실기술' '관직전고'는 사헌부 관원이 '정색하고 조정에 서면 모든 관료가 떨고 두려워한다'고

전하는데, 종2품 관청으로서 백관을 떨게 하는 권위는 이런 자기 검열에서 생긴 것이다. 사헌부 정6품 감찰(監察)에 대해서는 "남루한 옷에 좋지 않은 말과 찢어진 안장, 짧은 사모에 헤진 띠를 착용한다"고 전한다.

사법기관의 진정한 권위는 조선의 사헌부처럼 고위직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수사하고 자신에게 더욱 가혹한 도덕성을 갖추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일단 끝나면 승자는 선거기간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다. 패자가 부정선거라고 반발한 적은 있었지만 승자가 자신 휘하의 검찰을 시켜서 패자는 물론 그 부인까지 겨냥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검사장 탄핵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대거 나서서 반발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 장본인은 야당이 아니라 검찰 자신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솔질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미국치과의사협회나 영국 보건국은 하루 2회, 각 2분씩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며, 실제로 서구에서는 점심 후 칫솔질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식사 후 3분 내에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치아가 부식되기 시작하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회복되기에 매 식사 직후에 반드시 칫솔질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을 찌꺼기가 잘 침착되는 부위는 치아와 잇몸 사이,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이다. 치아와 잇몸 사이 부분을 잘 닦기 위해서는 칫솔을 45도로 기울여 치아와 잇몸 사이에 대고 앞뒤로 1~2mm 거리의 진동을 주며 닦아야 한다.

되고, 이 부위는 칫솔질만으로는 정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강세정기, 치실, 치간칫솔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강세정기는 음식물 찌꺼기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치아에 대한 부착력이 약한 치태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식사 직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한식에는 냄새가 강한 음식이 많은데 입냄새를 줄이려면 혀 뿌리너를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칫솔과 치간칫솔 같은 솔을 이용한 세정은 아침과 저녁에만 해도 치태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에도 불구하고 치석이 많이 쌓인다면 개인의 구강위생 관리법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중장년층은 칫솔 외에도 추가적인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도 지구도 살리는 해조류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 1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10% 정도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 일환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블루카본을 활용해야 한다. 블루카본은 갯벌이나 염생식물, 해조류 등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지구촌 탄소 중 57.6%는 육상(그린카본)에서, 42.4%는 해양(블루카본)에서 흡수하고 있다. 흡수 속도는 블루카본이 50배 이상 빠르다. 저장 능력도 훨씬 크다. 저장 기간은 자그마치 수천년 동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계는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자인 완도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기후변화 위기와 미래 식량난을 해결할 해법이 해조류에 있다고 보고 완도를 방문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잘피림(잘피숲), 염습지(갯벌), 맹그로브

(열대 해변, 습지의 나무 등 염생식물) 등 3종만 블루카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잘피는 물고기 서식 환경 제공과 오염물질 흡수, 생태계 정화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주요 탄소 흡수원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보기 어려워졌다. 많은 곳에서 잘피 서식지 개선타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것 같다.

이제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김, 미역 등 우리지역 주력 수산물인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되도록 관련 국가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키가 여기에 있다. 탄소 중립을 해결하지 못한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거나 양질의 좋은 기업 유치로 연계하면 가능한 일이다.

社說

반헌법적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은 국민이 잠 자리에 들 시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후시 전쟁이 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중복 반국가 세력 척결,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한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패악질 등을 꼽았지만 우리 국민은 물론 외신들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택한 자중수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절차 무시, 국회 제약은 위법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이후 국방부는 전군에 비상경계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계엄사령부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등을 골자로 한 포고령 1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48시간 이내에 현업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포고령 위반자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국회를 소집해 여야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여만이다. 그러나 우리 정체가 살아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가 최소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다행스럽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국민이 혼란에 빠졌지만 5·18민주화운동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충격은 동시에 이룩한 선진국가로 찬사를 받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위상과 신용도를 급락시킨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여야 190명 전원 찬성 해제

비상계엄은 철회됐지만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상계엄은 전쟁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사유는 야당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져 외교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가뜰스 어려운 경제마저 타격을 입고 있다. 지금은 불안정한 국가를, 불안한 국민을 걱정해야 할 시기이다.

45년의 역사를 뒤로 돌리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150분만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 돌이켜보면 취임 이후 그의 권력은 국가, 국민이 아닌 자신과 가족, 주변 소수를 위해 남용되었다.

無等鼓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0분 편집국으로 들어섰다. 밤 10시 23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너무나 뜬금없는 계엄선포에 어리둥절한 것도 잠시,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우려했다.

비상계엄 호외

18명은 국회로 갔으나, 나머지는 원내대표가 당사에 묶여두었다.

새벽 1시1분 190명 재적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즉시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하지만, 반응은 없었다.

45년의 역사를 뒤로 돌리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150분만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 돌이켜보면 취임 이후 그의 권력은 국가, 국민이 아닌 자신과 가족, 주변 소수를 위해 남용되었다.

문제는 국회가 열릴 수 있는지였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비상계엄의 효력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